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October 10
2010년 10월 · 통권 제183호

<비전성남>은 성남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입니다.

<http://snvision.cans21.net>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홍보담당관실 | 주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전화 031-729-2075~6 | 팩스 031-729-2089



분당구 궁내동 김철수(67) 씨 덕,
추석을 앞두고 고추를 말리는 이들의
손끝에서 가을이 영글어가고 있다.
사진 | 홍보담당관실 최선일

Contents

3 시정포커스
전통시장 사람들(2)
상대원시장

7 교육
중원청소년 수련관
청·소·중

8·9 특집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성남아트센터

16 문화·레포츠
가을산행
청계산

포토뉴스

일자리창출 '최우수 지자체'



시는 올 상반기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창출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시청사 2층에 설치한 성남일자리센터는 매달 330여 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구직자 취업성공률이 가장 높고, 취업상담과 동행면접, 사후관리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9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9만6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작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성남일자리센터팀 729-4412

제11회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 열어



지난 9월 11일 분당 중앙공원 내 분수대광장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성남시민 희망나누기를 주제로 제11회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가 열렸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관내 60여개 단체·기관이 참여한 이날 박람회에서는 많은 시민과 청소년이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757-6226~8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한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도서관에 신간도서를 비롯해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독서치료 강좌,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공공도서관 추진 행사도 상호 교류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도서관지원팀 729-4673

시민이 주인인 성남! 기회가 균등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제37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일 시 2010. 10. 8 (금) 10:00
- 장 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참석대상 우리시민, 유관기관장, 사회봉사단체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 행사내용 기념식, 식전·후 행사
 - 식전행사 : 성남시립국악단 연주
 - 기념식 : 의식행사 및 모범시민상 등 시상
 - 식후행사 : 성남시립합창단, 연합합창단, 성남소년소녀합창단 각 구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동아리 프로그램 발표 등

제18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성남시는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제18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3명을 8월 31일 선정 발표했다. 시상식은 10월 8일(금) 제37주년 시민의날 기념식 때 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 729-2972



학술부문
윤 중 준(尹鍾俊) | 46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성남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역사인물 재조명
- 천림산 봉수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활동
-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발굴 연구 등 학술연구 저술활동
- 탄천지명 유래의 올바른 역사적 배경 규명 등 학술연구 저술활동



예술부문
김 석 철(金錫喆) | 71 |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이사 및 자문위원

- 1980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문단 등단(시집 5권 출간 및 공동저서 50여권 출간)
-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경기지역위원회 부회장 활동
- 성남문화예술제 등 각종 문예행사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체육부문
김 재 천(金在千) | 43 | 성일고등학교 체육교사(하키감독)

- 창곡중학교 : 1991~1996년 전국 춘계 남녀하키대회(지도상) 1위 5회 수상 등 총 22회 각종 하키대회 수상
- 성일고등학교 : 1997~2010년 제1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하키대회(지도상) 1위 수상, 각종 하키대회 37회 수상
- 2009. 1 ~ 6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문지도자 활동 등

나눔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그린장터

청소년이 주축이 된 그린장터가 10월 9일과 30일 토요일 두 차례 야탑역 경관광장에서 열린다. 중원청소년수련관 국가인증프로그램인 그린장터에서는 개인소장품이나 재사용품을 저가로 판매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판매금액의 50% 이상을 시에서 운영하는 '무한감동'에 후원하며, 기부 참가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750-4642



기획 · 전통시장 사람들(2)

문화와 가족애가 살아 숨 쉬는 상대원시장

밀가루와 생선살, 옥수수, 당근, 깻잎 등을 버무려 20년 동안 즉석에서 오뎅을 만들고 있는 '즉석오뎅' ❶ 은 주인 고모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4년째 수련 중인 조카 김상민(31) 씨로 인해 활력이 넘친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찾아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시장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저희 집을 찾아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받고 있어요. 10년 전 가격 그대로예요." 그는 매주 원다방에 사연을 올리며 곡 신청을 하는 종각 애청자다.

'인터넷보다 똑똑한 엄마의 안목으로 골라 드려요 부흥상회' ❷ 간판 글귀대로 30년 동안 주방용품·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부흥상회는 조길연(57)·이봉호(55) 잉꼬부부의 가게다. "애 둘을 여기서 길렀는데 이제 시집, 장가 가야할 때가 됐어요. 우리 청춘을 이곳에 묻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곳에 와야 제대로 된 물건이 있다고 했지요. 한때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은 버렸어요. 임대료와 전기세를 낼 만하면 계속하고 싶어요."

잉꼬부부의 비결을 물으니 "옛날에 장사가 잘 될 때는 많이 싸웠어요. 서로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요. 이전 일이 없어 싸울 일도 없고 사이도 좋아요" 한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제일 심한 타격을 받은 곳 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0년 경력의 실전 경험이 쌓인 남편 박준봉(37) 씨와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아내 김수정(31) 씨가 알콩달콩 내일의 꿈을 키우는 '쿠키루프빵집' ❸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직접 만들고 당일 판매까지 끝내는 수제빵집이다.

방부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케이크도 하루 전에 주문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도라에몽 등 캐릭터 케이크로 만들어준다. 저녁에 재고로 남은 빵은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함께하는 주부모임'에 기증하는 아름다운 가게다.



"우리 시장의 자라는 방송국이죠. 방송이 없는 날은 어색해요. 이곳은 도심 속 시골이예요. 사람들도 인정 많고 시골스럽죠. 치킨기름만큼은 성남 최고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한다고 자부해요." 바쁘게 피자과 치킨을 판매하는 시장피자와찬찬치킨 ❹의 김연호(50)·이성경(48) 부부가 한목소리로 말한다. 2파리를 사도 메이커 치킨의 한 마리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자도 나눠먹으려고 2파리를 샀다.

"좋은 기름과 고춧가루를 만들려면 엄선된 재료, 좋은 기계, 청결, 만드는 사람의 노하우, 즉 정성과 혼이 깃들어야 해요." 37년 평생을 기름 짜고 고춧가루 빵는 한우물만 판다는 쌍둥이 고추기름집 ❺의 박헌수(65) 씨, "경아~" 하고 부르며 "아! 네네~" 하고 달려와서 돕는 아내 김정숙(61) 씨 덕분에 부부가 하는 일은 말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다. 상대원 3동에 사는 주부 최유미 씨는 "참기름 맛이 좋아서 결혼 후 6년째 단골" 이란다.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고 한 번만 먹어보면 단골이 됩니다." 주인의 힘찬 말 속에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전해진다. 자외선 살균이 되는, 중금속 발생 없는 고추기계를 사용하기에 기자도 즉석에서 태양초 한 근을 빵고 들깨가루를 샀다.

상대원시장에는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젖으며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상인들이 있었다. 30년 넘게 시장에 있다 보면 이제 떠날 날만 기다릴 법도한데 그들은 모두 그곳에 있는 것을 감사해했고 앞으로도 시장에 남기를 원했다. 도종환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 삶이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부부가 같이 가족의 이름으로 가게를 지키고 있고 상인들이 모인 더 큰 의미의 가족은 상대원시장이라는, 정 많은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손 글씨로 제작한 간판이
시장상가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시장 방송국
원다방에서 들리는 사람냄새
물씬 나는 목소리가 골목 구석구석
녹아 흐르는 곳.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시장이다.
부부가수 '들내와 하비'의 들내 씨가
신나는 상대원시장 방송국 원다방에서
아름다운 사연과 신청곡을 띄워 주고 있었다.



❸

❶

❺



알아두면 편해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를 조사한다. 10월 19~21일 준비조사를 거쳐 10월 22~31일 인터넷 조사 후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11월 1~15일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인구·가구·주택 등 19개 항목과 경제·주거·복지부문 등 50개 항목으로, 조사결과는 각종 국가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된다.

비전추진단 통계팀 729-2272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 1일~10월 18일 온라인 전입신고의 허위전입 여부 확인, 주민등록공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 조사 등을 실시한다. 실거주 여부 사실조사는 9월 3~26일 각동 주민센터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실조사 대상명부에 의해 해당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3

9월은 재산세 납부의달

2010.6.1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는 9월 16~30일 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신용카드, 전화(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정구 729-5160~3 중원구 729-6160~3

분당구 729-7160~3, 729-7480~4

폐식용유 수거함 시범설치

시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소형음식점 등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식용유 수거함을 시범설치했다. 설치지역은 동 주민센터 48개소를 비롯해 성호시장,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 중원구 하대원동 아튼빌아파트, 자이아파트, 분당구 시범단지 한신, 삼성아파트, 구미동 대림아파트 등 아파트 5개 단지 등 총 120개소다. 수거된 폐식용유는 성남 시새마을회에서 재생비누로 만들어 환경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729-3202

불법 및 노후간판 자진신고해오

수정구 관내 곳곳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노후된 간판, 주인 없는 광고물을 일제정비하기 위해 9월 1일~10월 30일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수정구(건축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철거동의서를 작성 신청하면, 수정구청에서 현지 확인 후 정비기관을 선정, 일제정비한다. 추후 불법광고물이 적발되면, 행정대집행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참여하자.

수정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729-5470~2

민원24

www.minwon.go.kr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 열람·신청·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없음.

편안한 추석연휴 위해 꼭 알아두세요!



아플 때는

- 당번약국 : 성남시약사회 www.snpass.or.kr
- 응급처치 : 국번없이 1339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및 병원 안내)
- 보건소 안내 : 수정구 729-3831~8 중원구 729-3891~8, 분당구 729-3951~8

-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반 운영
- 민원 신고 : 시청 청소행정과 729-3191~5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729-5321~4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729-6321~4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729-7321~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 추석연휴 전(9. 20 목 저녁까지)과 후(9. 23 목 일몰 이후)는 정상 수거
- 9월 21일 오전 ~ 23일 일몰 전까지는 휴무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 9월 20일(월) 18:00 ~ 9월 23일(목) 17:00 수정구·중원구 관내 학교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TIP 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 재활용 쓰레기(매일) : 이물질 제거해 깨끗하게 내 집 앞 배출
- 가전 가구 등 대형쓰레기(동 주민센터 지정일자) : 품목별 스티커를 구입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 타는 쓰레기(매일) :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내 집 대문 앞에 배출(문전 수거방식)
- 안 타는 쓰레기(매일) : 불연성 마대를 구입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음식 쓰레기(매일) : 단독주택은 물기를 제거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배출 공동주택아파트는 물기를 제거 후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성남 우수상품박람회가 축소 개최됩니다

| 10월 6~7일, 킨스타워 |

당초 10월 20~23일 4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2010 성남 우수상품박람회'가 10월 6~7일로 일정을 변경해 열린다. 기존의 제품 전시행사는 취소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e-Trade 상담회, 투자유치상담회, 유통망 진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 비즈니스 상담행사로 진행된다.

일시	행사명	시간	장소	행사내용
10.6(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0:00~17:00	킨스타워 7층 대강당	- 해외 바이어와 관내 기업 1:1 수출상담회
	투자유치 상담회	14:00~17:00	재단 회의실	- 벤처캐피탈 심사역 초청 상담
10.7(목)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0:00~17:00	7층 대강당	- 해외 바이어와 관내 기업 1:1 수출상담회
	유통망 진출상담회	14:00~17:00	재단 회의실	- 상품기획 MD 1:1 상담

- ▶ 문의 및 접수 :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부 마케팅지원팀
- 해외바이어 초청 782-3038, 이메일 sypark@snip.or.kr
- e-Trade 상담회 782-3041, 이메일 sue0622@snip.or.kr
- ※ 투자유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은 향후 별도 공고 예정



2010 성남창업경연대회 최우수상 (주)노바칩스

Storage Controller <차세대 저장장치>

최고 기업을 꿈꾼다



“뛰어난 인재들의 집합소, 가장 빠른 슈퍼칩 만들어요”
칩은 종합예술... 영역 확장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중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지난 7월 개최한 ‘2010 성남창업경연대회’에서 차세대 저장장치(SSD)라는 창업아이템으로 (주)노바칩스(NOVA CHIPS · 대표 김영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영관(40·사진) 대표는 “노바칩스의 창업 아이템 ‘BUGATTI’는 SATA3 고속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고속 SSD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창업경연대회에서의 최우수상은 본사의 독보적인 기술이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주)노바칩스(중원구 상대원동)는 반도체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인 SSD(Solid State Drive)의 핵심 칩인 컨트롤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으로 현재 SSD · USB · ECC 관련 IP(지적재산)를 관련 업계에 판매하고 있다.

SSD가 사용되는 제품은 TV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과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하다. 노바칩스의 “Hybrid SSD”는 SATA 3.0과 USB 3.0을 모두 지원하는 차세대 SSD 컨트롤러로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노바칩스가 주력으로 하는 BUGATTI는 USB3.0과 SATA3 규격을 채택해 USB2.0과 SATA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제품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USB2.0은 최대속도 480Mbps이지만, USB3.0은 최대속도 5Gbps로 USB2.0보다 10배 정도 빠르다. SATA2는 최대속도가 3Gbps인데 비해 SATA3는 최대속도 6Gbps로 2배 정도 빠른 전송 대역폭을 가진다.

16년간 반도체 설계분야 전문가로 대기업에서 일해 온 김영관 대표는 “노바칩스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부분의 높은 기술력과 개척정신은 급변하는 반도체 기술에 빠르게 대응해 업계를 선도하는 솔루션을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바칩스는 지난해 8월 플래시(Flash) 관련 대기업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 5명으로 출발, 현재 14명의 연구원과 1명의 경영지원 인력으로 국내 대형 팹리스(Fabless) 업계에서도 힘들어하는 65nm급 최신 공정기술을 사용하는, 잠재력 높은 벤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바칩스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노바칩스 R&D센터를 정식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고, 2009년 9월 연구원의 연구개발능력과 가능성, 축적된 기술력으로 기술보증기금 1억원의 보증과 함께 벤처기업 인증을 얻었다.

기술이 바뀌는 것이 보이는데도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 외에 다른 기술을 시도해 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창업하게 됐다는 김영관 대표. 그는 “가장 빠른 슈퍼칩을 꿈꾼다”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노바칩스의 제품은 빠른 전송 속도와 높은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칩은 종합예술”이라며 “스토리지를 바탕으로 영역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데, 앞으로도 노바칩스 연구진들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나눔, 초심”의 경영문화로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노바칩스 사람들. 이들은 고성능과 고용량의 차별화된 제품 BUGATTI를 출시해, NAND 스토리지 시장에서의 선두를 꿈꾸고 있다.

“지금 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만만치 않은 시드머니가 들어갑니다.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노바칩스에 투자하세요.” 밝게 웃는 김 대표의 얼굴에서 세계 최고가 보이는 듯했다.

노바칩스 070-8853-8555 www.novachips.com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2010 성남창업경연대회 입상자

구분	입상자	기업명	아이템명
최우수	김영관	(주)노바칩스	BUGATTI(SATA3를 지원하는 SSD 컨트롤러)
우수	한정민	(주)아이큐비	iPhone 및 iPad용 Game Contents 개발
우수	은경아	(주)세라트	High-Tech 세라믹 소재의 럭셔리제품 및 바이오제품의 다양한 적용
장려	김경월	(주)리온살리콘	Multi-channel Power Management IC(PMIC) 개발
장려	이태성	티에스엘	Network(IP) Multimedia Combo
장려	김명선	(주)토평인터랙티브	중소기업을 위한 IPTV/지상파 PPL 광고서비스

특독! 법률상담

유류분 반환청구



Q A씨는 아버지 B씨와 둘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병간호를 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지가 3개월 전에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A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당장 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A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상속인들도 일정부분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민법은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과 재산의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 상속인이나 상속개시 시 재산의 상속분이 있는 경우 앞의 방법으로 산정된 유류분과 비교하여 그 부족부분의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그러므로 A씨는 해당 장학재단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 · 법학 박사

복지 뉴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 지원

지난 3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됐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계산할 때,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상시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하고 75%만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436만원(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료를 100%, 60%, 30%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수 3인까지 133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만원, 6인 224만원 등이다. 양육수당은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수정구 729-5252 | 중원구 729-6254 | 분당구 729-7253



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2009년도 결산안, 제회 추경 등 각종 안건 심의 -

○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비비 포함)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과 ▲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청원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 2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가진 후, 14일 오전 10시에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제6대 개원기념식 개최

성남시의회는 9월 1일 시의원, 전직 의장단 및 의정동우회원, 이재명 시장 및 간부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성남시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제6대 시의회 출범을 대내·외에 공지함과 아울러 의회와 성남시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열고 의원 상호 간의 정보 교류의 계기를 마련했다.



행정기획위원회, 시정홍보관 등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가 발로 뛰는 생동감 있는 현장 의정 구현을 위해 시정홍보관, U-시티 상황실, 북카페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창근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활동도 현장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지중화사업장 등 방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생동감 있는 현장 의정 구현을 위해 9월 2일(목)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장을 방문, 한전 및 공사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2012년 9월로 예정된 사업 준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야탑동 4-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야탑밸리 조성과 관련해 사업연기 추진에 따른 대책을 주문하고, 이어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및 갈마치 생태통로를 둘러봤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현장에 대한 체감활동을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8월 31일 주요 문화복지 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방문하는 시설은 고령화 친화체험관과 제2추모의 집, 서현정수년수련관, 성남문화재단, 탄천종합운동장 등 5개의 주요 시설이다.

년수련관, 성남문화재단, 탄천종합운동장 등 5개의 주요 시설이다.

도시건설위원회, 공원로 공사 현장 등 방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9월 3일 금도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지역과 태풍 “곤파스”로 강풍피해가 심각한 공원로 공사 현장, 중3구역 재개발지역 등을 방문해 시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황

을 청취하고 대안제시에 나섰다.

특히, 지하철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의견 상충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원로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태풍 “곤파스”로 인한 공사 가림막 등 피해의 조속한 복구는 물론 향후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우리 수련관은 우리가 이끌어 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중원청소년수련관(중원구 둔촌대로 332) 안에는 청·소·중(중원 청소년 소통의 중심)이라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들(9~24세)의 가능성과 문화적 성향을 이끌어 내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전국청소년참여대회 '여성가족부 장관상'



지난 8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는 '2010년 제5회 전국청소년참여대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부문에서 청·소·중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청소년 53개 팀 250여 명이 참가하는 청소년참여대회로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중원청소년들의 '의견소통의 존'이라는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이다.

"모든 위원들이 합심해 잘해 주어 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다음엔 퍼포먼스나 뉴스캐러디, 소품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어요."

이번 대회에서 사례발표를 한 윤성운(성남여고2·교류&소통팀장) 양이 주어진 시간 5분 내에서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하는 말이다.

청·소·중은 기획&관리팀, 교류&소통팀, 교육&홍보팀으로 나뉘어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활동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집, 청소년을 대표해 수련관 내의 활용공간 제안, 운영 아이디어 제의,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개선·제안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의견은 수련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원하는 공간 만들어



"청소년의 시각으로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모니터링 하고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이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는 이소현 양은 기획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실제로 독서실 마련, 에어컨 및 프린터 설치 등은 청·소·중의 제안이 최근 반영

된 것이라고.

또한 "시설도 환경도 좋는데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적어 홍보할 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박예진(상원여중2·교육&홍보팀) 양의 말처럼, 이들은 청소년 이용 공간 소개와 홍보용 풍선 배포, 음료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성남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

늘 조언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투명하고 정직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신명철 수련관 관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청소년이나 소외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창의·도전·혁신 등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블루오션 전략을 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소·중이 기준과 여건을 갖춘 의견소통의 장이 돼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750-4600

www.jw youth.or.kr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클릭! 청소년 뉴스

▶ 제13회 성남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

오는 10월 16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온누리관에서 성남시 주최, (사)대한웅변인협회 성남시지부 주관으로 열린다. 참가부문은 유치부,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다.

원고내용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이거나,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적절하게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원고는 10월 5일(화)까지 시청 신성장녹색과로 접수하면 된다.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신성장녹색과 신재생에너지팀 729-3283

이메일 badboy@korea.kr

▶ 수정도서관 하반기 레인보우 프로그램

시 거주 결혼이주 여성과 2~7세 유아를 위해 10월 7일~11월 25일 무료로 강좌를 진행한다.

신나는 노래와 율동 그리고 동화책을 통한 발성연습, 동화 소품을 만들면서 책과 친해지는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은 10월 7~28일 매주 목요일(14:30~16:30)에, 독서 후 좋은 글귀를 담은 디자인증비누와 한방 스킨·로션·샴푸를 만들면서 생활 속 자연의 건강함과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 '한국 자연제품 체험'은 11월 4~25일 매주 목요일(14:30~16:30)에 각각 다문화가정 1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9월 14일(화)부터 선착순으로 인터넷(<http://sj.snlib.net>), 전화, 방문 접수한다.

수정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43-9600

▶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세미나

소아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역할, 의사소통 등 양육기술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10월 8일(금) 오후 2~5시 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마련된다. 이날 정신건강세미나에서는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 역할을 강의하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관심 있는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행사 당일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티움

751-2445~6

▶ 행복하고 재미있는 청소년 방송·영상축제

- 10월 9일(토) 10:00~15:00
- 음성변조기 이용한 노래 1곡 부르기, 신청곡과 함께 사연쓰기, 착한 맛글달기 캠페인, 엽기사진 찍기 등
- 가족 희노애락 참여영상 접수 9.13(월)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740-5281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성남아트센터



오는 10월 14일 개관 5주년을 맞는 성남아트센터 앞에는 깃발이 나부낀다. 각종 공연과 전시를 알리는 깃발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마음도 함께 살랑거리지는 않는지...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떠오른 사람과 함께 아트센터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 보자.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가는 아트센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딱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운 아트센터 공연, 전시 소식을 알아보자.



이반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월 8일(금) 오후 8시 콘서트홀

2005년 10월 성남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때 연주했던 헝가리 출신 지휘자 이반 피셔와 그가 헝가리 출신 연주자를 모아 1983년에 창단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시 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전문잡지 <그라모폰>지가 선정한 세계 오케스트라 톱20에 선정된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에는 로시니의 <도둑까치 서곡>,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슈베르트 <교향곡 9번>을 연주한다.

♪ 티켓 : VIP석 13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4만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백주영



이반피셔

마티네콘서트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브런치 콘서트



김동규

'오케스트라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공연하고 있는 마티네 콘서트의 10월 공연은 'Special Voyage'로 준비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바리톤 김동규의 진행으로 세종솔로이스츠 소사이어티와 비발디 앙상블이 연주한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5년 뉴욕에서 창단된 이후 세계 각지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는 세계 정상급의 앙상블이다.

세종솔로이스츠 소사이어티는 세종솔로이스츠의 전 멤버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와 함께 공연하는 '비발디 앙상블'은 줄리아드 음대 강효 교수가 뉴욕에서 2001년 어린 연주자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고자 창립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뉴욕시에서 수차례의 앙상블과 독주 공연을 가졌다.

♪ 10월 21일 Special Voyage 세종솔로이스츠 소사이어티 & 비발디 앙상블

♪ 11월 18일 영국·미국편 성남시립교향악단

♪ 12월 16일 러시아편 수원시립교향악단

♪ 티켓 : 전석 2만4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모스틀리오케스트라



김현철

유엔젤보이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기부 음악회

9월 26일(일) 오후 7시 콘서트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가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여는 이 음악회는 IT기업 (주)유엔젤이 후원하는 중창단 '유엔젤보이스'를 비롯해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김현철, 성악가 김학남, 김영환, 그리고 박상현이 지휘하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

연하여 뮤지컬 <아이디>, <노틀담 드 파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히트 넘버,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 우리가곡 <내 맘의 강물>, 스페인민요 <그라나다> 등을 연주한다. 공연 티켓 판매금액은 전액 성남아트센터 후원금으로 쓰인다.

♪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오페라하우스 1층에 어린이 놀이방과 수유실도 있다. 어린이 놀이방은 3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런 편의 시설을 잘 이용하면 공연과 전시를 만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연과 전시를 보러 가면 군데군데 놓여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아 보자. 공연과 전시장 외에도 둘러볼 곳이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음악 따라 춤추는 분

수도 구경하고, 오페라하우스에 공연이 있을 때면 빛의 계단에서 펼쳐지는 조명쇼도 덤으로 즐겨보자. '자연 그대로 변함없이' 라는 뜻에 맞게 아트센터 뒤 산길에 소박하게 만들어진 산책길 '온새미길'로 큐브플라자에 가면 더 즐거울 것 같다.

성남아트센터 783-8000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뮤지컬 남한산성

9월 30일(목)~10월 17일(일) 오페라하우스

평일 : 오후 8시 / 토요일 : 오후 3시, 7시 30분 / 일요일 : 오후 3시

※ 10월 2일(토) 프리뷰 오후 5시 1회 공연

지난해에 공연된 창작 뮤지컬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뮤지컬 <남한산성>.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 원작이다. 올해 공연되는 뮤지컬은 지난해 공연과 많이 달라졌다. 음악감독이 바뀌었으며 가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음악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또한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가사, 안무 등을 수정했다.

출연진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에 무대에 올랐던 배우들과 신예 배우들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오달제와 매향의 러브라인을 없애고 매향과 초홍의 캐릭터도 없었다. 그리고 조금은 약해 보였던 오달제의 캐릭터와 초연에서 강한 이미지로 등장했던 정명수의 캐릭터에 변화를 주었다. TV에서 출연하며 더욱 친숙해진 배우 최재림이 새로워진 정명수역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궁금하다. 엔딩도 새로워졌다고 한다. 기대되는 공연이다.

♪ 티켓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배우 최재림



성남시립국악단 '2010 토요일 국악나들이'

10월 9일, 11월 13일, 12월 11일(토) 오후 3시

양상블시어터



9~12월 매주 둘째주 토요일 선보이는 이 공연은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우리 전통 음악을 체험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전통과 현대적 조화가 어우러진 국악으로 듣는 전통음악, 산조합주를 비롯해 국악으로 듣는 만화 주제곡 '내 친구 둘리' '장구는 못말려', 어린이를 위한 장고합주, 국악기 소개로 꾸며진다. 토요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 티켓 : 일반 3천원, 어린이·청소년 2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 성남시립국악단 729-4810 www.sn-pac.or.kr

대명절 추석 이미지 효(孝) 대공연

9월 22일(수) 오후 3시, 6시 오페라하우스



김동건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노래로 회상하는 지난 세월, 부모님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면 더욱 기억에 남는 추석이 될 것이다. '어머님 전상서' '기러기 아빠' '동백아가씨'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섬마을 선생님' 등을 가수 이미자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애잔하며 구성진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 티켓 : VIP석 9만9천원 / R석 8만8천원 /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 B석 5만5천원
♪ 예매 : (주)하늘소리 1566-2505

기타 전시와 공연



▶ 양상블 오푸스 정기연주회
9월 29일(수) 오후 8시 콘서트홀
티켓 : R석 5만원 S석 2만5천원 A석 1만원
문의 : (주)오푸스 1544-5142

▶ MIK양상블 정기연주회
10월 9일(토) 오후 5시 콘서트홀
티켓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 김명희 개인전
9월 25일(토)~10월 3일(일) 10:30~19:30
미술관 별관

▶ 분당작가회 정기전
9월 25일(토)~10월 3일(일) 10:30~19:30
미술관 본관

▶ 이정애 개인전
9월 25일(토)~10월 3일(일) 10:30~19:30
미술관 본관 제3전시실

▶ 2010 도시에 핀 들꽃전
10월 6일~10월 13일(수) 10:30~19:30
미술관 별관

36자매의 아름다운 동행

정자1동 어머니자율방법대



오늘날 사회는 참여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나 봉사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는 아니다. 그만큼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여성들이 가정에서 쉬거나 가사를 돌볼 시간에 다른 사람의 밤길 귀가안전을 위해서 마을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다.



왼쪽부터 오산옥(부대장), 최금용, 박혜영, 전영자(감사), 박우춘(대장), 황인교, 장은임, 문혜옥 대원

지난 2006년 2월 초대 양정자 대장을 시작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정자1동 어머니자율방법대는 올 2월 박우춘

(54) 대장을 2대 대장으로 임명했다. 36명의 대원이 자매처럼 어울려 지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조로 나뉘

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방법활동을 하고, 순찰이 끝나면 초소에 모여서 그 날 일지를 쓴다.

방법대의 맏언니인 전영자(62) 대원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탄전을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행복함과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한다. “인천에서 이사 와 돌을 지낸 아들이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다 보니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더 큰 삶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오산옥(53) 부대장의 환한 웃음은 보는 이들을 기분 좋게 한다.

95년에 이사 왔다는 장은임 대원은 탄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복 받은 동네라며 정자동에 사는 것은 행운이라고 한다. 문혜옥(53) 대원은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왕소연의 “로망”을 좋아한다고.

이제 새내기 최용금(51) 대원은 “쉬었던 산행을 다시 시작했다”며 건강한 생활로 봉사할 것 이라고 산을 이야기 하고, 옆에 있던 박혜영(50) 대원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봉사활동이 좋다고 한다.

낮이면 부동산전문가로, 청소년상담가로, 또 마을산악회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마을 애경사를 챙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해내는 슈퍼우먼 황인교(53) 대원은 전 부대장이기도 하다. 처음 방법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

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방법등도 많이 생기고 취약지점에는 CCTV도 설치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

불장난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내고 불을 끄던 일, 빼앗긴 가방을 찾아주던 일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지도하면서 보람도 느끼지만 그보다도 지역주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36명의 대원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박우춘 대장은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청소년 불법유해광고물도 제거하고, 청소년학생봉사활동도 함께하며, 청소년 등하교길 안심귀가지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늦은 시간에도 자주 들러 격려해주는 도의원·시의원·최승자 동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앞으로 꾸준히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대원들과 하나가 돼 취임하던 날의 처음 그 마음으로 어머니자율방법대의 역할을 소신껏 해 낼 생각”이라고 박대장은 다짐한다. 수요근무자들과 나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바로 36명 대원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자율적으로 모인 정자1동 어머니자율방법대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정자1동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 “파이팅!” 힘찬 구호소리가 들린다.

문의 | 정자동주민센터 729-7681~3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엔돌핀 UP

사람냄새 나는 착한 동호회

10주년 맞은 '인라인 바람소리'



동호회가 10년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데, 9월 1일은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 '바람소리'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찾아보았다. 비가 연신 내려 중앙공원에서의 야외행사는 취소됐지만 분당구 정자동 한 음식점에서 조촐하게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바람소리에서 인라인을 신고, 땀방울을 흘리며 달리던 추억을 생각하며, 그들은 서로의 회고담을 즐기고 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우정을 쌓아 왔으니 보고 싶고 소식이 기다려졌다는 그들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역력하다. 바람소리는 여러 회원이 그 자리를 재밌게 지켜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이 바람소리의 주인이 돼 함께해 줄 것이라며 서로를 격려한다.

인라인 스케이트도 중요하지만, 사람냄새가 나는 착한 동호회 바람소리. 온라인상으로 번창할 때는 회원이 2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만2천여 명 정도 된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회원 등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500여 명으로 60대부터 10대까지 많이 나오는 편이며, 요즘은 50대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분당구청 옆 인라인 트

랙, 중앙공원·남한산성 트랙에서 매주 수요일 5시에 무료강습이 있다.

바람소리는 성남시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시장배 등 각종 대회에 나가 여러 번 상을 받았다. 한 회원이 “특히 육관수(34) 회원은 바람소리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고 생활체육회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분당구청 트랙에서 인라인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직업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 바람소리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노경래(38) 운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가까워서 할 수 있고, 장비를 한 번 구입하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며 “여러이서 함께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가을바람도 솔솔 불어오니, 운동의 계절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여름 내 더위에 지친 몸을 가다듬는 방편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가을바람 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인라인 바람소리 <http://cafe.daum.net/baramsori>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우리 동네 역사이야기 · 금토동(1)

국방 문화유산 천림산 봉수지

예부터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북을 치거나 나팔을 불며, 파발마를 띄워 소식을 전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방법이었다. 다른 통신 방법에 비해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한 통신수단이 있었으니 바로 봉수다. 봉수(烽燧)란 횃불(烽)과 연기(燧)로 변방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에 알려 이를 대비하는 통신제도로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이리 뚝을 이용해 연기를 피워 신호를 전달했다. 평상시 변방의 위험이 없을 때에는 한줄기의 신호를 올렸기 때문에 평안화(平安火)라 불리기도 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화포나 북, 나팔 또는 깃발로 알려거나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보고했다. 그 중요한 봉수가 우리 고장에도 있었으니 천림산 봉수다. 청계산자락인 수정구 금토동 산3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다.

경기 감사가 관리감독 맡을 만큼 중요해

‘봉수는 서울 목멱산(남산)의 경봉수, 바닷가의 연변봉수, 내륙의 내지봉수로 구분되며 세종 때에 다섯 개의 직봉(直烽)노선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간봉(間烽)으로 정비되어 고종 31년(1894)까지 유지됐다.

천림산 봉수는 우리나라 다섯 개의 직봉 노선 가운데 두 번째 노선의 마지막 전달 봉수로 부산 다대포진 응봉(鷹峯)에서 시작돼 용인의 석성산 봉수의 신호를 전달받아 서울의 목멱산 봉수에 전달했다.

1846년에 홍경모가 편찬한 『중정 남한지(重訂南漢志)』에 “봉군 25명, 보 75명”이라는 기록을 통해 봉수군의 인원은 25명으로 5명씩 한 조를 이뤄 5교대로 근무했고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75명의 인원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봉수는 그 지역의 수령이 관리책임을 맡았지만 천림산 봉수는 경기 감사가 직접 관리 감독을 맡을 만큼 중요한 봉수였다.

천림산 봉수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최초로 기록돼 있고 다른 지역의 봉수보다 잔존상태가 매우 온전하게 남아 있는 조선전기 축조물로 평면 형태가 장반타원형으로 둘레는 82.5m이며 하단부 둘레는 85m가량이다. 서울 남산 쪽을 향한 5개의 연조(煙竈, 굴뚝)와 방호벽, 담장시설, 계단식 출입시설, 봉수군의 거주와 비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부속 건물터가 확인됐고, 방호벽은 동서 길이 33.8m, 남북 길이 12m, 내부면적 333㎡(약 100평)로 내지봉수의 구조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봉수다.

천림산 봉수, 복원의 의미

천림산 봉수의 위치가 세상에 알려진 건 금토동 원주민 윤희상 씨에 의해서다. 광복 50주년이 되던 1995년에 전국 봉화제가 열렸다. 이때 성남문화원이 제1회 봉화제를 개최했고, 1996년 제2회 통일기원 봉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희상 씨가 제보했다. 1999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봉수관련 학술회의가 성남문화원 주최로 열리게 됐다.

정확한 문헌고증을 통해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고증을 토대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정밀지표조사 및 봉수터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천림산 봉수터 아래편은 과거 부산에서 시작된 봉수의 신호를 받아 서울의 목멱산에 전달했던 것처럼, 고속국도 제1호인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로 예나 지금이나 교통 통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변방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에 알려 이를 대비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켰던 통신수단 봉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국방 문화유산이다. 현재 전국의

봉수 실태조사와 문헌기록 조사를 통해 성남문화원이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림산 봉수가 원형대로 보존·복원돼 서울 남산을 향해 봉수를 올려 유형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역사교육의 체험학습장이 된다면 우리 고장의 자량이 아닐까.

금토동(金土洞)은 조선시대에 광주군 대왕면 금토동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현동과 둔토리를 병합해 첫 글자를 따서 금토리로 불리다가 1973년 7월, 시 승격에 따라 금토동으로 됐다.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도움말 |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조민자 기자 dudifdk@hanmail.net



천림산봉수터



남산(목멱산)

위기청소년, 탈선으로부터 보호

성남시 청소년 일시 쉼터 ‘한울’



여름캠프

판사가 되고 싶다는 정모(15) 군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대부분 청소년 일시 쉼터 ‘한울’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곳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고민 상담은 물론 간식, 긴급 수면, 샤워 및 세탁, 응급처치, 컴퓨터 이용 등 필요한 대부분을 해

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수정구 태평2동 3481번지)은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정읍심는복지회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호연 사회복지사는 “리스·꽃

바구니·압화부채 등 청소년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열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원예체험 활동’을 비롯해 여름캠프, 문화활동, 청소년 이동인구가 많은 학교 앞·놀이터 등에서 주3회 ‘거리 이동상담’을 실시, 위기·위험 노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교육하고 있다”며 “한울은 9~19세 청소년을 가출, 거리의 비행이나 탈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 군은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쉼터가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방학 기간에는 하루 40~50여 명, 평상시는 20~30여 명의 청소년이 이곳을 찾는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위

기에 처해있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 마음으로 다가가면 청소년들이 미래의 바라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정태자 소장은 “잠잘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한울’이 일시 쉼터가 아닌 24시간 시스템이 갖추어져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간 평일 10:00~22:00

토요일 09:00~18:00

내용 고민상담(진로·친구·가출), 심리검사, 간식 및 휴식 공간, 인터넷, 음극처치, 휴대폰 충전 등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 758-1388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명사의 서재 | 문수모 (주)링크이지코리아 대표

“리더십은 인간 심리의 이해로부터...”



“리더십 개발은 곧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문수모(48·서현동·사진) (주)링크이지코리아 대표.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는 전문 경영자나 임원들의 공통된 특성은 바로 폭넓은 인간행동과 심리의 이해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문 대표는 삼성그룹, 외국계기업 그리고 우수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한 후 미국에서 조직심리(조직개발)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귀국해 현재 미국에서 리더십 분야로 가장 유명한 컨설팅회사인 링크지(Linkage)사의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

문 대표는 링크지사의 비즈니스 영역이 경영자나 관리자 등의 리더십 개발에 필요한 개인 코칭 및 사람들의 리더십 향상에 관한 조언자 역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동이나 심리에 관한 책을 자주 접한다고 한다.

그는 “햇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클수록 그림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많은 경영자나 임원들을 만나보면 내면에 질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그림자>(이부영)를 소개했다.

인간내면을 들여다본 분석심리학 탐구서로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의 자아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에 번역된 <스누프(Snoop)>(샘 고슬링)은 그러한 면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다른 사람의 지적 수준, 취향, 성향 등을 알려는 시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

요즘 문 대표는 “주중에는 고객들을 만나고 주말을 이용해 책을 읽는다”고 한다. 마음과 머리가 복잡할 때면,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책 <무소유>(법정)를 읽어보기를 권했다.

• 문수모 대표가 추천하는 책

1. 법정·류시화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스님의 잠언 모음집
2. 이어령 <지성에서 영성으로>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소비자 Info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섭취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동물 및 인체시험 등 과학적 근거 자료를 심사해 인정해 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각종 비타민제, 클로렐라, 오메가-3, 글루코사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좋다고 해 무조건 섭취하는 건 옳지 않다.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할 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당질인 주성분으로 인해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동맥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위 그림)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유지를 위한 보조제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자.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금융회사 X파일 은행편④

10분 만에 판매되는 금융상품(방카슈랑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할 수 있다. 은행의 과거 주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로 인한 마진이었으나, 이제는 좀더 많은 상품을 통해 수입을 마련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방카슈랑스’(방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보험을 일컫는다.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의 특성상 장기 동안 자금이 운영되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생보업계 판매채널 비중 변화 (초회 보험료 기준)

자료 : 생명보험협회

	회사직급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기타		소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FY07	1357억	3.1%	1조9258억	44.6%	4165억	9.6%	1조8401억	42.6%	5억	0.01%	4조3188억
FY08	1112억	2.9%	1조4933억	39.7%	3894억	10.3%	1조7598억	46.6%	34억	0.09%	3조7573억
FY09	926억	1.6%	1조7230억	30.2%	5119억	8.9%	3조3579억	58.9%	92억	0.16%	5조6947억
2010 4월	7억	1.1%	1270억	21.3%	382억	6.4%	4224억	70.9%	7억	0.1%	5956억

위의 표는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의 생명보험 가입채널에 따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고 2010년 4월엔 전체 생명보험 계약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는 그동안 은행이 쌓은 신뢰와 접근성을 바탕으로 공격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상담을 통해서도 방카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만, 가입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잘 모

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충분히 설명받기엔 창구에서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또한, 은행이 가진 기득권을 통해 대출의 조건으로 이른바 ‘끼기’라는 끼워넣기식 판매도 일부 진행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판매 프로세스를 보면 그 차이점을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1. 보험 판매 조직의 프로세스 :
관계정립 → 기초상담(고객의 니즈 및 재무상황 파악) → 상품 제시 → 판매
2. 은행에서의 판매 :
간략상담 → 추천 상품 제시 → 판매

은행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기초상담(니즈파악 및 재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인데, 보험상품의 특성상 기초상담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방카를 판매하는 은행에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주요하겠다.

1.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인가?
2. 기존 보험과 중복되거나 과도한 부분은 없는가?
3. 내 미래의 자금 계획에 부합되는 상품인가?
4. 약관의 내용과 설명받은 내용이 일치하는가?
5. 납입기간과 계약 만기 등은 적절한가?

※ 다음호에는 증권사 편이 게재됩니다.

포드재무설계 재무상담사
남기일 | moneyplan@podofp.com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치는 1990년 5.1%에서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에는 24.3%로 증가할 추세다. 평균수명 증가로 이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어르신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한편 1773년에 중국의 조정동(曹庭棟)이라는 사람은 300여 종의 서적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생활규칙을 <노노항언(老老恒言)>이란 서적에 적어 놓았는데, 현대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 그의 나이 75세에 저술된 책이니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이 책에서 그가 소개한 어르신들의 소화기능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어르신에게는 소화기능이 제일 중요하니, 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한다. 한방에서는 영양흡수를 담당

하는 소화기능을 선천(先天)과 반대되는 후천(後天)에 비유하는데, 소화기능을 위해서는 당귀나 쑥 같은, 성질이 따뜻한 약재로 복대를 만들어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더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고 지나치게 찬 음식은 삼가는 게 좋다.

둘째, 음식량을 조절해 과식하지 말고, 야식을 삼간다. 조정동은 음식이 많고 적은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음식의 양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식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삼가고, 더운 물을 조금 마시어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권했다.

셋째, 음식은 담백하게 골고루 섭취하고 맛이 강한 음식은 피한다. 한방적으로 담백한 음식은 맛도 좋고 성질이 양(陽)에 속해 기(氣)를 잘 소통시키므로 소화기능에 도움이 되므로, 지나치게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사법은 아연 등의 미량 무기질의 부족

을 유발하고, 근육량의 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어 좋지 않다. 즉, 밥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일정량 줄이고,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당뇨·고지혈증·고혈압·비만 등의 만성질환의 발병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다.

넷째, 완전히 소화된 후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다. 아무리 몸을 보(補)하는 것이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손상을 받는다. 또한, 음식을 거르지 않고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보고에 의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어르신이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보다 훨씬 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서도 최소한 세끼의 식사와 간식으로 조금씩, 자주 섭취하고, 음식을 제 시간에 먹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산보를 한다. 어르신은 장부의 기능이 저하돼 있으므로 식사 후 가벼운 산책으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에 도움이 주어야 한다. 이러

어르신의 소화기능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윤철호 3내과 과장

한 운동법은 신체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의외로 그 내용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소한 이러한 규칙들이 건강하게 사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그는 '매일 지켜야 하는 작은 규칙이지만, 모두 마음에 새겨두어라'고 강조했다.

문의 710-3721

시립도서관

10월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현실 안에서 현실을 뛰어넘기 『장자』

- 일시 : 10.8 ~ 11.5(매주 금 19:30~21:30)
- 내용 : 『장자』를 통해 현실을 성찰하고 새로운 비전 제시
- 강사 : 길진숙(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 접수 : 9.27(월) 09:30 선착순 인터넷 접수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33

야간 인문학 단기 강좌

- 시민대학 : 어려운 집짓기
10.5 ~ 11.23(매주 화), 함성호 시인·건축가
- 단기특강 : 문학으로 보는 근대 중국의 초상
10.7 ~ 11.4(매주 목), 최정옥 고려대 국제어학원 강사
- 접수 : 9.27~29 선착순 인터넷 접수(<http://online.snlib.net>)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63

10월 문화의달 행사

- 인문학강좌 : 고품격 시민 아카데미 - 영화와 미술
- 10.5~11.24(매주 화, 8주 과정), 성남시민 대상, 9.27~29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서양미술사의 연대기 순에 따라 미술과 영화의 관계 조명 (강사 한창호 영화평론가)
- 어린이 연극 : 호랑이 오빠 '얼쑤~'
- 10.20(수) 16:00~17:00
- 어린이와 동반 부모 대상, 9.27~29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체험행사 : 내가 멋진 책을 만들었어요(미니북 만들기)
- 10.12(화) 15:00~16:00/ 10.14(목) 16:00~17:00
- 어린이와 동반부모 대상, 자율 체험

판교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584

건/강/게/시/판

걷기운동으로 당뇨 아웃~ 10월 9일 중앙공원 건강걷기대회

성남시 3개 구 보건소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세계당뇨병의날(11월 14일)을 기념, 10월 9일 오전 9시부터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당뇨인과 가족, 일반인이 참가하는 건강걷기대회를 연다.

참가희망자는 보건소와 각 병원 당뇨교육실에 신청하면 된다.

수정구보건소 729-3859
중앙구보건소 729-3920
분당구보건소 729-4001, 분당차병원 780-5550
분당제생병원 779-02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87-2326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열성질환 조심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쯔쯔가무시증·신증후출혈열을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고 ▲ 야외 식사 시 돛자리를 사용하고 사용한 돛자리는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며 ▲ 야외활동 시 겂옷에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옷과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 반드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두

통·고열·오한 등 심한 감기증상이나 별레 물린 곳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좋다.

중원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29-3922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은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0월 4일~12월 31일 동 주민센터를 순회할 때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65세 이상(1945.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무료 예방접종할 수 있다. 순회 시 접촉하지 못했거나 보건소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하면 된다.

보건소 지역보건팀 | 수정구 729-3842~7
중원구 729-3905~8 분당구 729-3963~7

알코올상담센터 야간 특별교육

오는 10월 29일(금) 오후 7~8시 센터 재활프로그램실(구 성남시청 별관2층)에서 알코올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알코올의존자 가족의 회복 이야기'를 주제로 교육한다. 강사는 안강호 원장(안강호열린신경정신과의원).

또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에는 알코올 문제 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20대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경험담을 나누는 알라틴(Alateen) 자조모임(익명성과 비밀보장)도 열린다.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751-2768~9



대학생 행정인턴 (열린배움터 체험기)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여름

박상진 | 분당구 서현동

솔직히 지방행정인턴을 지원한 동기는 그저 자기소개서의 스펙 한 줄을 적어 넣기 위함에 지나지 않았다. 이왕 할 거라면 '성남시'에서 인증해주는 행정인턴이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금은 불순한 의도로 나의 행정인턴 체험은 시작됐다.

하지만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속받고 다시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에서 두 달간 일하게 되면서 이러한 나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업무보조와 학습도우미의 역할을 하게 될 나를 너무나 환한 얼굴로 반기고 챙겨주시는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 선생님" 하며 나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순한 의도로 인턴을 시작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졌고, 단순히 하루 4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나 역시 이곳에 정을 붙이고 싶어졌다.

아이들에게 그저 잠시 방학 때만 왔다 가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중에까지도 기억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또 비록 아직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나눠주고 알려주고 싶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긋난 적도, 때로는 어설픈 적도 많았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2010년의 여름을 생각할 때 내가 웃으며 말해줬던, 혹은 심각하게 말해줬던 이야기들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역시 지금의 날들을 그저 '성남시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참여한 여름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한 여름으로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날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될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이번 여름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욕심 같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비록 나란 사람은 기억 못해도 내가 해준 이야기 하나 정도는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받고 깨우치게 해준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 두 달이란 시간이 한없이 짧음을 느끼게 해준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 원짜리 객석이 선물한 즐거움

고연정 | 분당구 이매동

서둘러 저녁을 먹고 한참 동안 아들을 설득했지만 야구경기가 주는 행복감이 더 큰 듯 아들은 떠나실 생각이 없어 보여 혼자서 성남아트센터로 향했다. 더운 날씨에다 예매도 안 했고 좌석이 있을지, 있더라도 어떤 좌석일지 하는 생각에 나도 슬그머니 주저앉고 싶었지만, 요 며칠 전부터 식구들에게 소문을 내었던 터라 혼자서라도 집을 나서야만 했다.

도착하니 아직 이른 듯 한기했다. 티켓을 구입하려 좌석배치표를 보니 거의 만석인 듯했는데 운 좋게 앞쪽에 한 좌석이 비어 있었다. 1층 앞에서 2번째 줄, 흔히 말하는 VIP석이다. 혼자 왔기에 얻은 행운이라는 생각에 은근히 아들이 고맙기까지 했다. 티켓 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만 원짜리 한 장! 전석이 만원이니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공연장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이제 시작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회자가 불쑥 나와 특별 손님으로 시장님을 소개했다. 그 자리에 석학 이어령 씨와 동석했다. 조금 뒤 푸른 무늬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바이올리니스트가 등장하자 드디어 교향악단 전체가 지휘자의 몸짓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와우! 라이브로 연주되는 바이올린의 떨림이 그대로 온 몸으로 전해져 왔다. 1악장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대 가까이 앉은 덕분에 박수소리에 살짝 당혹해 하는 지휘자



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연주 중 음악이 잠시 멈추면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닌지 긴장하곤 하는데, 이날은 용케 참았지만 마음은 박수에 열심인 관객들과 같았다. 2악장이 끝났을 때도 객석에서 어김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아름다운 바이올리니스트와 수십 명의 연주자들은 연주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연주가 끝나니 여기저기서 "브라보!"를 외치고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도 몇몇 보였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푸른 무늬의 바이올리니스트는 무대 위를 몇 번 오락가락하더니 앙코르 없이 무대에서 사라졌다.

두 번째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작곡가가 비통함과 슬픔을 담아 만들었고 더욱이 이 곡을 초연한 후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니 그 사연만으로도 절절한 마음이 들었다.

연주는 슬픔과 고통으로 작아져가는 여러고 무기력한 마음을, 장렬한 울림 중간 중간 그리고 절제된 멜로디로 그려갔다. 이러한 장렬한 울림 속에서도 눈을 감고 망중한(忙中閑)을 즐기는 옆자리의 아가씨가 무척이나 신기해 보였다.

이날 공연은 공연장도, 연주자도, 연주곡도 최고였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뛰다. 만 원 한 장으로 VIP석에 앉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즐기다니... 비록 혼자였지만 기대 이상의 호사스런 황제가 무더운 한여름 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이달의 포토



중앙공원 토끼들의 휴식 정재두 | 중원구 상대원동
중앙공원의 귀여운 토끼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친구와 사람구경 나왔나 보다.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 이달의 독자를 모집합니다. 10월 7일(목)까지 보내주세요.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주소 연락처 기재 바람).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2010 성남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 개최

- 공모부문 : 전통공예기능으로 성남시를 상징하는 향토성이 내포된 창의적 공예품(2m × 2m × 2m 이내)
- 출품부문 : 목칠 · 도자 · 금속 · 섬유 · 종이 · 기타 공예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응시원서 교부 및 작품접수 : 10.6 ~ 10.7
- 접수장소 : 성남아트센터(출품료 없음)
- 결과발표 : 10.13(수) (사)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홈페이지
- 수상작 전시 : 10.28~10.30 시청사 1층(누리홀)

(사)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735-7734 www.snf.or.kr

성남시 수정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시 거주 여성
- 연습 : 매주 화 · 목요일 14:00~16:00 수정구청 연습실
- 활동 : 정기연주회 개최, 국내외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수정구여성합창단장 010-5717-2408, 수정구청 문화체육팀 729-5272

가정법률 및 가정폭력 상담 안내

- 대상 : 월~금 10:00~16:00 접수하신 분에 한함.

무료소송구조 안내

- 내용 : ①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소송구조(진단서 · 112신고 · 사진 등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함.) ②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이행학보 관련(양육비, 친권자 지정 · 변경, 인지 등)
-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민 · 형사에 관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사전예약자
- 장소 :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내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 교육일시
 - 1차 : 10.5(화) 14:00~17:00 성남동 · 중동 · 하대원동 · 도촌동
 - 2차 : 10.6(수) 14:00~17:00 상대원동 · 금광동 · 은행동
- 대상 : 일반음식점 기준 영업주(2010년 신규 및 지위승계자 제외)
-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강당(태평동 소재)
- 준비물 : 교육통지서, 신분증, 교육비(6천원)
- 교육내용 : 식품위생법 해설, 친절서비스, 노무관리 등

한국음식업중앙회 성남시중원구지부 751-0612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 대상채권 : 1995년도 이후 발행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공채)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단,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은 제외)
- ※ 소멸시효 : 원금(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 이자(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
- 상환대상자 : 지역개발채권(공채)증권 소지자, 채권매입증서상의 명의자
- 상환장소 : 전국 농협중앙회 및 회원(지역)농업 영업점(연중)

경기도 예산담당관 경제투자예산담당 8008-2854

성남시여성발전기금 후원 '평등연인상 공모'

- 접수기간 : 8.30 ~ 10.1
- 응모자격 : 성남시 거주 20대 연인
- 주제 : 경제 · 성 · 꿈, 어떻게 협력하며 조화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경험 사례(A4 용지 10매 이내)
- 접수방법 : 이메일(snhwl@naver.com)
- 신청서 : 성남여성의전화 홈페이지 www.snwhotline.or.kr

(사)성남여성의전화 751-2050

등록금 걱정, 정부지원 학자금대출로 해결하세요!

- 든든학자금 : 가계 소득분위 1~7분위 학부생에게 대출. 신용기준은 없으며,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지원. 졸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만 원리금 상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가계 소득분위 8~10분위 학부생(기존 재학생은 가계 소득분위 1~7분위 경우에도 선택 가능)에게 대출(대학원생도 가능), 최소한의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재학중 이자납부, 거치기간 이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해야 함.
- 농촌출신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함. 융자금액은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
- 접수 : 9. 29(수)까지 인터넷 접수

한국장학재단 02-2259-2023 www.studentloan.go.kr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납부기간 : 8.11 ~ 10.10(분할납부 가능)
- 내용 : 동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환수대상) 면제.
-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10년 10·11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수정구청	한글	성남시민	10.4 ~ 10.15	09:00~10:30	9.15(수)부터 선착순 인터넷 접수 www.sujeong-gu.or.kr ☎729-5072
	스위시맥스			11:00~12:30	
	인터넷 활용		13:00~14:30		
	한글 활용		09:00~10:30		
	스위시맥스 활용		11:00~12:30		
중원구청	한글	성남시민	10.1 ~ 10.29	월~금 10:00~12:00	9.1(수)부터 선착순 중원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729-6073
	엑셀			월~금 13:00~15:00	
	인터넷		월·화·목·금 18:30~20:30		
	워드프로세서 2급대반		토·일 09:00~12:00		
	파워포인트		월~금 10:00~12:00		
	컴퓨터기초		11.1 ~ 11.30	월~금 13:00~15:00	
	한글		월·화·목·금 18:30~20:30		
수정도서관	클래시	성남시민(성인)	10.5 ~ 10.28	화~금 09:30~11:00	9.28(화)~9.30(목) 선착순 인터넷 접수 (sj.snlib.net) ☎743-9600(214)
	파워포인트디자인			화~금 11:30~13:00	
	인터넷200% 활용			화~금 14:00~15:30	
중원도서관	문서작성실무	성남시민(직장인)	10.9 ~ 10.30	토 10:00~12:30	9.28(화)~9.30(목) 09:00~18:00 인터넷 선착순 접수 (jw.snlib.net) ☎752-3916
	ITQ한글			화~금 09:30~11:00	
	나모로 홈페이지 만들기			화~금 11:30~13:00	
	뉴실버세대를 위한 컴퓨터기초			화~금 14:00~15:30	
	한글2004로 다양한 문서작성			화~금 16:00~17:30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직장인을 위한 홈페이지 디자인	장애인 및 가족	10.2 ~ 10.23	토 09:30~12:30	수시모집 ☎732-6884
	직장인을 위한 엑셀(심화)			토 13:30~16:30	
	PC활용기초			3개월 (월수금) 09:30~11:00	
	인터넷			3개월 (월수금) 11:00~12:30	
	워드자격증			3개월 (월수금) 09:30~11:00	
엑셀자격증	3개월 (월수금) 11:00~12:30				
멀티미디어 활용	3개월 (화목) 09:30~11:00				
파워포인트	3개월 (화목) 11:00~12:30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분당구청 : 마감

성남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개

- 매월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water.cans21.net/수질관리/수질검사현황)
- 수질검사 문의 : 729-4148(복정정수장 수질시험팀)

정수과 수질시험팀 729-4145

〈비전성남〉 무료 정기구독 안내

- 〈비전성남〉을 보면 성남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홈페이지 http://snvision.cans21.net
- 연락처 :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2010년 10월 문화 행사 캘린더



영국현대회화전 - 존 무어 현대회화 수상전

- 기간 : 8. 6(금)~10. 14(목)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신관(큐비미술관)
- 티켓 : 일반 · 대학생 4천원, 학생 3천원, 유치부 2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아우라지로 떠나는 가을 가족캠프

- 10. 23~24 강원도 정선
- 레일바이크 체험, 화암중굴 탐사, 화암약수터 산책 및 시음, 생활미술 배우기
- 접수 : 9.27(월) 09:00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 참가비 : 2만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750-4680



성남시립합창단 제109회 정기연주회

- 일시 : 10.21(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가격 : 미정

성남시립합창단 709-4807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일시 : 10.7(목) 오후 8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출연 : 지휘 김봉, 협연 아라요코(첼로)
- 프로그램 : 바그너 리엔제 서곡, 생상스 첼로 협주곡, 린스 키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 파야 삼각모자
- 티켓 : 전석 1만원

성남시립교향악단 729-4809



중원도서관 고품격 시민아카데미 - 영화와 미술

- 기간 : 10.2 ~ 11.20 매주 토요일 10:00~12:00
- 대상 : 중학생 이상 성남시민
- 내용 : 영화는 어떻게 미술을 이용하는가?
- 르네상스 미술과 영화, 바로크와 영화, 로코코와 영화, 낭만주의와 영화, 인상주의와 영화, 아방가르드와 영화(서양미술사의 연대기순에 따라 영화의 미술의 관계를 읽는다.)
- 강사 : 영화평론가 한창호(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강)
- 접수 : 9.28(화) 10:00부터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jw.snlib.net)

중원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52-3916



성남 **백 배** 즐기기



가을산행 청계산느린산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이 가볍다. 한 발 앞서 보낸 여름은 떠나기 아쉬운 표정으로 주위를 서성이고 있지만 온몸 칙칙이 묻어나던 무거움이 사라진 상쾌한 바람, 가을의 문턱에 다가섰음을 느끼기에 충분한 9월이다. 가을바람의 속삭임이 정겨운 청계산 능선에서 익어가는 가을에 귀 기울여보자. 청계산은 도심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이번 산행은 옛골을 들머리 삼아 오르기로 한다.



옛골 시계등산로 입구 → 매봉 정상(느린 걸음 약 1시간 30분 소요)

작은 능선으로 시작하는 완만한 비탈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한다. 키가 훌쩍 큰 나무들은 간간히 작은 틈새를 이용해 하늘은 내어준다. 여름 산행인에게는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고, 우중 산행인에게는 비를 막아주며 한 모습으로 옷이 서있었을 것이다.

산길은 좁고 넓음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던 것이 어느새 매봉을 향한 나무계단이 한 줄로 서서 정상으로 인도한다. 합장을 하고 세 바퀴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돌문바위를 지나 매바위에 올라 장난감 블록처럼 수놓아진 강남과 분당을 조망한다. 청계산을 오르는 많은 산행인들이 정상으로 삼으며 전망 좋기로 유명한 매봉 정상에 다다르면 과천과 관악산의 풍경이 환하게 펼쳐진다.

매봉 → 망경대(20분 소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좁은 9부 능선으로 이어진다. 밧줄을 잡아야 안전한 길은 마치 약산으로 유명한 산 어디쯤에 올라와 있나 착각이 들게끔 한다. 산길에서 마주쳤을 때 오름길 사람들을 위해 내림길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에티켓이 꼭 필요한 구간이다.

송산 조건 선생을 비롯해 고려 말 신하들이 청계산에 은거하면서 이곳에 올라와 나라가 멸망한 것을 비통해하다 개경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망경대'가 청계산의 주봉이자 정상이지만 군부대가 있어 바로 옆 석기봉이 정상을 대신한다.

이곳에서 만난 분당구 분당동에서 왔다는 산행인에게 청계산의 좋은 점을 물었다. "근처 다른 산도 있지만 청계산은 휴산이라서 여름에는 덥지 않고 발이 피곤하지 않아서 좋아요"라며 "체력 조건에 따라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청계산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망경대 → 이수봉(30분 소요)

잘생긴 소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더듬더듬 내려간다. 청계산은 등산로가 여러 가닥으로 뻗어 있어 다양한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산행 중 몸의 상태에 따라 어디서든 하산이 가능하다. 현재 향하는 방향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든 왼쪽 길로 방향을 잡으면 성남 인근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조선 연산군 때의 유학자인 정여창 선생이 스승 김종직과 한때 이 산에 은거하며 생명의 위기를 두 번이나 넘겼다 해 붙여졌다는 이수봉. 그 역사를 담은 유래비가 이수봉의 정상석으로 서있다.

이수봉 → 목배등, 봉오재 입구(1시간 20분 소요)

계곡은 깊고 아늑하며 수려하고 울창한 숲을 가졌다. 철쭉능선을 따라 평지길과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길을 몇 번 지나 목배등 삼거리에 도착한다. 길 따라 이어지는 잘생긴 소나무 능선을 따라 걸으며 청계산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 속에 잠시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본다. 청계산이 품은 이야기를 뒤안으로 남기며 봉오재 입구에 도착, 산행을 마무리한다.

옛골을 들머리 삼는 청계산 행 교통편은 모란역 5번 출구에서 11-1번 금토동 행 버스에 승차해 옛골 입구에서 하차하면 된다. 이번 호에 담지 못한 청계산행은 다음 호에 고구려의 충신 조운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국사봉에서 윤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어지는 산행 길로 소개할 예정이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